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의 관련성 연구

A Study on the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s of Adolescent

신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가족학과
교수 이기숙
석사 박소영

Major of Family studies, Silla Univ.
Professor : Lee, Ki-sook
Master : Park, So- young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논의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dolesc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s and the relationships of there two factors.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dolescents' stress and social supports depending on their sex, family status, socio-economic statu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467 middle school students in Pusan. Questionnaires were used consisting of adolescents' perceived stress and social supports for data analysis, Cronbach's α -coefficient, frequency distribution, percentage, Oneway-ANOVA, t-test and Pearson's r-coefficient were used.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Adolescents' stres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ex, father's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and family intimacy. The source of the adolescents' social support sourc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their sex, family status, father's educational level, mother's educational level, family income and family intimacy. Adolescents' social support types were different depending on family status, father educational level, mother educational level, father's job, family income and family intimacy. There were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tress and social supports.

I. 문제제기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출생시부터 사망까지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적응을 요구하는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상황들에 접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기술할 정도로 불안, 갈등, 고민 등으로 가득 찬 격동의 시기를 경험하게 되며, 다른 어느 발달 단계보다도 가장 변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취하여야 할 발달과제가 많아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박성희, 1997). 따라서 이 시기는 스트레스적 생활사건 발생의 중요한 단계(Newcomb, Huba & Bentler, 1981)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는 생활사건의 변화에서 경험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작은 일들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일상적인 스트레스가 동시에 발생하여 복합적 효과를 나타내면 단일 생활사건보다 더 위협적일 수 있으므로(Kanner, Coyne, Schaefer & Lazarus, 1981), 일상적 스트레스의 영향력이 강조되고 있다.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일상적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핀 연구 결과에서도 일상적 스트레스가 생활사건보다 더욱 설명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청소년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스트레스가 개인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친밀한 사회적 관계의 맥락 내에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고 하였다(Coyne & Downey, 1991). 이러한 사회적 관계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대처자원인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중재변수로 큰 주목을 받게 되었고 특히 예방심리학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지는 미래의 스트레스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Dubow & Tisak, 1989).

청소년들은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생태학적 조직망 속에서 생활하며, 정서, 정보, 물질 등의 사회적 지지를 받으므로, 청소년이 어떠한 사회적 지지를 받는가에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고 심리적 안녕에 기여할 수 있는 대처 자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원천과 유형 및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련성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다.

한편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학력과 부의 직업, 월소득, 청소년의 성별, 부모의 생존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의 축적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이 청소년이 처한 환경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와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지각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하였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차이가 있는가?
 -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 지지원의 하위영역별 차이가 있는가?
 - (2)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에 따라 사회적 지지유형의 하위영역별 차이가 있는가?
-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스트레스(stress)는 현대인의 일상생활에서 아주

익숙한 용어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상으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주요 관심사이지만 아직도 학문적으로 일치된 의견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또한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되고 있다.

스트레스의 개념은 주로 세 가지 관점에서 파악되고 있다. 즉 자극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외적인 환경조건으로부터 내적인 생리현상까지 다양한 자극으로 포함하며, 반응으로서의 스트레스는 주로 생물학이나 의학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초기의 입장을 취한다. 상호역동으로서의 스트레스 개념은 개인과 환경간을 매개하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대처과정을 검토하며 스트레스를 이해하려는 입장으로, 자극 및 반응의 스트레스 개념을 모두 포함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최해림, 198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의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상호역동적 입장을 받아들이고자 한다.

스트레스 측정의 방법은 객관적인 측정방법과 주관적 측정방법이 있다. 스트레스의 객관적인 측정은 생활사건의 발생 자체를 평가하며, 주관적인 측정은 생활사건과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간의 중요한 관련성을 지적하는 방법이다. 전자의 방법은 스트레스원의 평가와 사건발생 간에 시간을 두는 것과, 긴장된다고 평가되는 스트레스 사건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스 연구들은 후자의 방법으로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를 그 자체만으로는 그다지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의 누적은 사람을 정신병원으로 보낼 만큼의 문제거리라는 정의(Charles Buroski: 최창호, 1993, 재인용)와 함께, 스트레스를 주관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윤혜정(1993)은 고등학생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전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며, 학교와 가족과 관련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지각한다고 하였다. 이경주(1997)는 우리나라 청소년은 일상생활에서 중간점수보다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지각하며, 영역별로는 학업관련 영역, 교사관련 영역, 가족관련 영역, 친구관련 영역, 신체관련 영역 순으로,

이경희와 김광웅(1996)은 중학생들은 학업성적 문제, 부모와의 관계, 심리·성격문제의 순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였다. 정선자와 이경희(1998)의 연구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원의 요인으로 학업성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스트레스에 관련된 배경변인을 살펴보면,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가족환경 변인 즉 부모의 학력, 소득수준, 부의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났다. 그리고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주(1997)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하며, 여학생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을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변인으로 부모의 존재상태,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 월소득, 성별 등이 예측된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스트레스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는 환경변인으로, '한 개인이 그가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지는 대처의 한 형태로, 혹은 대처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간주된다. Berrera(1981)는 사회적 지지에는 개인에게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탈피, 책임감을 공유, 조언을 제공, 문제 해결 기술의 습득, 그리고,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주는 노력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방법에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이 있다(Cohen & Wills, 1985). 첫째, 구조적인 측면은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는데, 이것은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는가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양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몇 가지 하위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Caplan & Killiea(1976)는 사회적 지지를 정서적 지지, 실제적 지지, 정보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Cobb(1976)은 정서적 지지, 자존감 지지, 관계망 지지로 나누었다. House(1981)는 정서적 지지, 정보적 지지, 도구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김수민, 1987; 심미경, 1986; Buhrmester & Furman, 1987)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의미있는 타자는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교사 등이며, 이들이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주요한 사람임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둘째, 기능적 측면의 측정의 방법은 다시 객관적 측면, 주관적 측면으로 구분되며, 최근 연구들은 객관적 지지(objective support)보다는 주관적 지지(perceived support)를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Barrera, 1986). 송중용(1988)은 개인에게 객관적인 지지자원이 있다는 것과 그가 지지를 받았다고 지각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으며, 외부에서 지지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지로 지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것이 진정한 지지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들을 토대로 사회적 지지를 지지원과 지지유형으로 분류한 다음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는 것을 평정하는 방법, 즉 자기보고식 측정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초·중·고등학생 모두 지지원에서는 부모로부터 받은 지지를, 지지유형에서는 정서적 지지를 가장 높게 지각했으며, 스트레스 해결에 있어서 주로 도움을 받는 지지원은 동성친구라는 연구(장윤정, 1996)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실태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경주(1996)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중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수준은 중간정도로 지각하고 있었으며, 하위영역별로는 지지원 차원에서 또래 지지가 가장 높고 교사 지지가 가장 낮았으며, 지지유형 차원에서는 물질적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었으며, 정보적 지지와 자존감 지지가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김계향(1992)은 청소년들이 친구지지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배경변인의 연구는 다양하다. 이경주(1996)는 남학생은 지지원에서 부의 학력

과 소득에 따라, 지지유형은 부의 학력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은 지지유형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이 없었고, 지지원에서 부모의 학력과 모의 결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윤혜정(1993)은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는 성별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아버지와 교사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친구의 사회적 지지를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인은 성별, 부모의 존재상태,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 월소득 등이다.

3.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와 정신건강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정신건강의 인자로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떠한 양태로 정신건강에 작용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대해 완충효과를 가지는가, 주효과를 가지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먼저 완충효과 모델(buffering effect model)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원(stressor)이 개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본다(Dubow 등, 1989). 반면에, 주효과 모델(main effect model)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원과는 독립적으로 개인의 적응과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본다.

완충효과 가설은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만 사회적 지지가 적응에 이로움을 준다고 보는 반면, 주효과 가설은 스트레스 사건과 사회적 지지가 서로 무관하게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점에서 다르다. 이 두 가지 모델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는데, 완충효과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와 주효과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각기 다른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지가 개인의 건강 및 안녕에 미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지수준임을 전제한다.

청소년의 스트레스 지각과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사회적 지지 지각에 관한 선행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에서는 사회관계망이 크고, 지지제공이 많을수록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는 감소하였다고 밝혔다(Wolchik, Beals & Sandler, 1989). 윤혜정(1993)의 연구는 청소년들은 사회관계망, 즉, 구체적으로 부, 모, 형제, 친구, 교사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존중되며, 필요한 도움을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할수록 일상생활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수준이 감소한다는 스트레스 완충효과 모델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경주 외(1998)의 연구에서 가족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은 집단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적게 인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적응에 유익한 영향을 미쳐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할수록 적응과정에 있

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 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지지 지각과 스트레스 지각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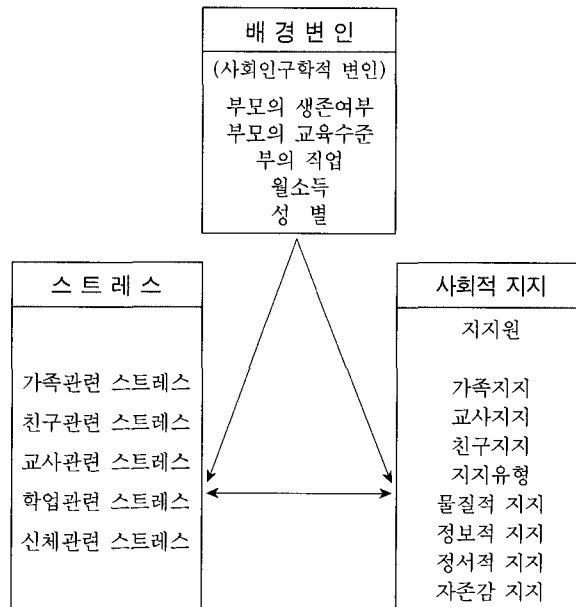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10개 중학교 남녀 학생이었다. 대상을 선정할 때 지역성을 고려하여 부산시의 각 구별로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이들 중 불성실한 응답 및 무응답을 경우를 제외한



<그림 1> 연구모형

467명의 자료만을 통계분석에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학생이 전체 39.8%를 차지하는 186명이었고, 여학생은 60.0%인 280명이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표 1>, <표 2>, <표 3>을 참조 바란다.

3. 측정도구

1) 스트레스 척도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이경주(1997)의 자녀 스트레스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문항구성은 가족관련 영역(5문항), 교사관련 영역(5문항), 친구관련 영역(5문항), 학업관련 영역(6문항), 신체관련 영역(3문항)의 5개 영역으로, 총 24문항이다. 스트레스 수준은 Likert형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즉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는다에 1점을, 심하게 받는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척도는 Dubow와 Ullman(1989)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 박지원(1986), 김명숙(1994)의 사회적 지지 평가 척도를 참고하여 연구자가 제작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는 지지원과 지지유형의 두 척도로 나누어진다. 사회적 지지원은 가족 지지(5문항), 교사지지(5문항), 친구지지(5문항)의 세 측면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지유형은 물질적 지지(3문항), 정보적 지지(3문항), 정서적 지지(6문항), 자존감 지지(5문항)의 네 측면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지원과 사회적 지지유형에 있어 지지수준은 모두 Likert형 5점 척도로 하였으며, 지지를 전혀 받지 않는다에 1점, 아주 그렇다에 5점을 주어 점수가 높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지지원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86$, 지지유형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로 나타났다.

4. 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조사는 예비조사 및 전문가 조사를 거쳐 1999년 6월 15일-7월15일 사이에 부산시내 거주 중학생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최종통계분석에 사용된 조사대상자는 467명이었다.

조사방법은 본 연구자가 담임교사와 전화통화를 한 후 직접 중학교를 방문하여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질문지 응답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고, 교사가 직접 교실에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의 처리를 위해서는 SPSS 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 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분산분석 및 Scheff 검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질문지의 신뢰도는 각 항목들의 내적 일치도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차이

<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체 스트레스를 보면, 성별($p < .001$)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가족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 교사스트레스는 성별과 부의 학력에 따라, 친구스트레스와 학업스트레스는 성별에 따라서, 신체스트레스는 성별과 월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집단간 차이검정을 위해 Scheff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교사스트레스에서 부의 학력에 따른 하위집단간, 신체스트레스에서 월소득에 따른 하위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하위영역별 차이 (평균, 표준편차)

집 단	변 인	가족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신체스트레스	전체스트레스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성 별	남	3.19(.84)	3.44(.91)	3.12(.86)	3.79(.75)	2.69(.95)	3.30(.61)
	여	3.43(.76)	3.69(.81)	3.29(.82)	4.01(.62)	3.09(1.03)	3.57(.55)
	t 값	-3.26***	-3.13**	-2.116*	-3.25***	-4.14***	-4.56***
부모상태	모두계심	3.33(.80)	3.61(.86)	3.22(.84)	3.92(.69)	2.94(1.02)	3.47(.59)
	한분만계심	3.49(.68)	3.37(.93)	3.30(.81)	3.85(.62)	2.82(1.09)	3.45(.56)
	t 값	-1.04	1.38	-.44	.55	.57	.12
부의 학력	중졸	3.27(.79)	3.72(.67)	3.34(.81)	3.95(.60)	3.09(.88)	3.51(.47)
	고졸	3.29(.81)	3.50(.86)	3.14(.86)	3.90(.70)	2.92(1.00)	3.40(.61)
	대졸이상	3.41(.78)	3.68(.87)	3.29(.82)	3.94(.70)	2.89(1.09)	3.54(.58)
	F값	1.12	# 3.09*	2.08	2.92	.87	2.61
모의 학력	중졸	3.31(.84)	3.59(.77)	3.20(.87)	3.93(.67)	3.08(.94)	3.46(.56)
	고졸	3.32(.82)	3.57(.86)	3.21(.84)	3.90(.71)	2.87(1.04)	3.43(.62)
	대졸이상	3.41(.72)	3.64(.89)	3.27(.81)	3.98(.65)	2.91(1.02)	3.55(.52)
	F값	.53	.20	.23	.55	1.39	1.27
부의직업	무직, 단순노동	3.27(.86)	3.58(.83)	3.27(.71)	4.08(.56)	3.25(.8455)	3.54(.47)
	반숙련, 숙련직	3.28(.80)	3.51(.84)	3.15(.89)	3.86(.71)	2.88(1.01)	3.39(.63)
	판매, 사무직	3.30(.79)	3.57(.83)	3.25(.84)	3.94(.68)	2.89(1.01)	3.45(.57)
	관리, 전문직	3.49(.78)	3.74(.96)	3.22(.87)	3.83(.74)	2.86(1.11)	3.52(.64)
	F값	1.40	1.22	.41	1.76	1.96	1.12
월 소 득	100만원 이하	3.37(.83)	3.49(.82)	3.28(.75)	3.98(.67)	3.10(1.06)	3.48(.57)
	100만원-200만원	3.37(.77)	3.67(.85)	3.28(.84)	3.94(.69)	3.03(.99)	3.50(.58)
	200만원-300만원	3.26(.79)	3.59(.86)	3.27(.82)	3.86(.68)	2.76(.94)	3.42(.57)
	300만원 이상	3.31(.86)	3.56(.93)	2.97(.92)	3.89(.71)	2.69(1.13)	3.38(.66)
	F값	.47	.67	2.01	.58	# 3.43*	.79

주) 1. * p<.05, **p<.01, ***p<.001

2. # Scheff 검증을 실시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표에는 명시하지 않았음

이상의 결과에서 월소득이 가장 낮은 집단의 청소년이 신체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결과는 옷이나 머리모양 등 외모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물질적 지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가족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신체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는 이경주(1997)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것은 남아와 여아의

다른 사회화 경험에 기인한다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남아에 비해 여아는 대인관계에 보다 민감하고 애착적이고, 대인간의 친밀한 관계와 정서적인 측면을 중시하도록 강화를 받는다(Barnett et al, 1987; 강영자·이재연, 1996, 재인용). 이러한 사회화 과정으로 인해 여아는 남아보다 대인관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되며, 결국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한다.

2. 청소년의 환경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하위영역별 차이

1)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의 하위영역별 차이

〈표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지원 전체를 보면, 성별($p<.01$), 모의 학력($p<.05$), 월소득($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많을수록 지지를 많이 받았다.

추후검증 결과 모의 학력 하위집단들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월소득의 경우 월소득이 가장 높은 집단과 가장 낮은 집단간의 차이가 유의적이었고 이 차이가 집단간의 유의적 차이를 형성시켰다고 볼 수 있다.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지지는 성별, 부모존재, 모의 학력, 부의 학력,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부모가 모두 계시는 경우,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

〈표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의 하위영역별 차이

평균(표준편차)

	집 단	가족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지지원 전체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성 별	남	3.88(.90)	2.93(.76)	3.62(.68)	3.25(.66)
	여	3.62(.97)	2.79(.84)	3.73(.64)	3.05(.72)
	t값	2.89**	1.89	-1.70	2.91**
부모생존	모두계심	3.76(.94)	2.85(.81)	3.71(.62)	3.15(.70)
	한분만계심	3.20(1.04)	2.75(.77)	3.32(.98)	2.90(.62)
	t값	2.98**	.60	3.06**	1.76
모의 학력	중졸	3.53(.97) a	2.75(.79)	3.57(.65) a	3.01(.67)
	고졸	3.74(.96)	2.84(.81)	3.68(.67)	3.14(.71)
	대졸이상	3.95(.80) a	2.95(.82)	3.84(.59) a	3.28(.67)
	F 값	4.59*	1.36	3.92*	3.18*
부의 학력	중졸	3.63(.92)	2.73(.83)	3.70(.57)	3.04(.69)
	고졸	3.65(.96)	2.81(.78)	3.64(.68)	3.09(.70)
	대졸이상	3.88(.91)	2.94(.82)	3.76(.64)	3.24(.69)
	F값	3.30*	1.82	1.75	2.90
부의 직업	무직, 단순노동	3.59(.99)	2.80(.76)	3.50(.76)	3.04(.71)
	반숙련, 숙련직	3.58(1.00)	2.76(.81)	3.62(.63)	3.03(.70)
	판매, 사무직	3.82(.95)	2.89(.79)	3.72(.63)	3.20(.71)
	관리, 전문직	3.82(.87)	2.94(.90)	3.82(.68)	3.23(.71)
	F 값	2.14	.95	3.18*	2.09
월 소 득	100만원 이하	3.44(.91) ab	2.82(.90)	3.44(.76) ab	3.03(.75) a
	100만원-200만원	3.70(.97)	2.75(.75) a	3.63(.62) c	3.06(.68) b
	200만원-300만원	3.90(.91) a	2.93(.81)	3.81(.58) a	3.24(.71)
	300만원 이상	3.94(.91) b	3.13(.85) a	3.96(.64) bc	3.40(.65) ab
	F 값	4.58*	3.06*	9.19***	4.81**

주) 1. * $p<.05$, ** $p<.01$, *** $p<.001$

2. abc : 같은 문자끼리에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 있음

록, 월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집단보다 200만원이상인 집단이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지지는 월소득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특히 100-200만원이하인 집단보다 300만원이상인 집단이 더 많이 지각하였다. 이것은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수준이 높고, 가계소득이 많을수록 아동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나 지지가 높아지기 때문이라는 이봉희(1988)의 연구와 일치된다고 본다.

친구지지는 부모의 생존여부, 모의 학력, 부의 직업,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가 모두 계시는 경우, 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보다 대졸이상인 집단이, 부의 직업수준이 높을수록, 월소득이 200-300만원이하인 집단과 300만원이상인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를 집단별로 추후검정한 결과 모의 학력과 월소득에서 하위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일부 나타났다. 부의 직업수준에서는 하위집단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대체로 월소득이 많고 특히 모의 학력이 높은 환경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하였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자녀에게 그만큼 더 관심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며, 자녀가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더욱 격려하고, 아동의 사회적 지지 추구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훈련(Cochran & Brassard, 1979)시키고, 사회관계망이 넓어지고 교류의 빈도가 많아지기(Feiring & Lewis, 1987)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2)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유형의 하위영역별 차이

<표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지유형 전체를 보면, 부의 학력(p<.01), 모의 학력(p<.001), 부의 직업(p<.01), 월소득(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부와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부의 직업이 사무·관리직에 가까울수록, 월소득이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이

를 하위집단간 추후검정한 결과 부의 학력이 고졸인 집단과 대졸인 집단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이 중졸인 집단과 고졸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의 직업이 무직 및 단순노동인 집단보다 판매 및 사무직 이상인 집단이, 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집단보다 그 이상인 집단간에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하위영역별로 보면, 물질적 지지는 부모의 생존여부, 모의 학력, 부의 직업,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모 두 분이 모두 계시는 경우, 모의 학력이 높을 경우, 부의 직업수준이 높은 편인 경우, 월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집단보다 200-300만원이하인 집단과 300만원이상인 집단이 많이 지각하였다. 그러나 모의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지유형의 추후검증 결과 하위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 지지는 부모생존여부, 부모의 학력,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 두분이 모두 계시는 경우, 부의 학력이 중졸 및 고졸인 집단보다 대졸인 집단이, 모의 학력이 중졸인 집단보다 대졸인 집단이, 월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들보다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는 월소득에 따라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월소득이 200-300만원이하인 집단과 300만원이상인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대체로 소득이 많은 집단이 많이 지각하였다.

자존감 지지는 부모의 학력, 부의 직업, 월소득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의 직업이 무직·단순노동인 집단, 반숙련·숙련직 집단보다 관리·전문직 집단일 때 많이 지각하였고 월소득이 100만원이하인 집단보다 그 이상인 집단이, 200-300만원이하인 집단보다는 300만원이상인 집단이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대체로 월소득이 많고, 부모의 학력이 높은 경우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의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유형을 높게 지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며, 자녀가 타인과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유형의 하위영역별 차이

평균(표준편차)

변 인	집 단	물질지지	정보지지	정서지지	지존감지지	지지유형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M / Scheff
성 별	남	3.93(.76)	3.38(.80)	3.57(.76)	3.79(.85)	3.68(.66)
	여	3.93(.81)	3.47(.85)	3.62(.82)	3.83(.97)	3.72(.72)
	t값	.01	-1.17	-.60	-.51	-.65
부모생존	모두계심	3.95(.77)	3.46(.81)	3.62(.78)	3.83(.91)	3.73(.67)
	한분만계심	3.49(.96)	2.97(1.02)	3.34(1.02)	3.55(1.14)	3.36(.95)
	t값	3.02**	3.03**	1.77	1.58	1.95
부의 학력	중졸	3.88(.73)	3.49(.74) a	3.79(.88)	3.34(.71)	3.61(.62)
	고졸	3.87(.80)	3.51(.80) b	3.75(.96)	3.34(.85) a	3.63(.71) a
	대졸이상	4.05(.76)	3.79(.77) ab	3.95(.87)	3.63(.83) a	3.87(.66) a
	F값	2.96	6.65***	2.26	6.32**	6.17**
모의 학력	중졸	3.82(.79)	3.41(.79) a	3.67(1.00)	3.27(.77) a	3.55(.69) a
	고졸	3.93(.80)	3.61(.81)	3.83(.93)	3.41(.84) b	3.70(.72) b
	대졸이상	4.09(.66)	3.79(.71) a	3.98(.82)	3.72(.80) ab	3.92(.56) ab
	F 값	3.05*	5.42**	2.74	7.746***	6.716***
부의 직업	무직, 단순노동	3.79(.77)	3.44(.83)	3.59(1.01)	3.21(.80) a	3.47(.75) ab
	반숙련, 숙련직	3.76(.82)	3.51(.81)	3.72(.95)	3.30(.84) b	3.60(.71)
	판매, 사무직	4.02(.76)	3.67(.76)	3.92(.87)	3.50(.83)	3.79(.65) a
	관리, 전문직	4.03(.81)	3.71(.84)	3.88(.97)	3.63(.84) ab	3.82(.74) b
	F 값	3.62*	2.10	2.35	4.18**	4.30**
월 소 득	100만원 이하	3.60(.84) abc	3.36(.83) ab	3.50(1.04) ab	3.03(.83) abc	3.37(.77) abc
	100만원-200만원	3.88(.78)	3.52(.77) c	3.74(.91) c	3.36(.80) a	3.64(.68) a
	200만원-300만원	4.05(.73) ac	3.70(.68) a	4.00(.84) a	3.54(.81) bd	3.84(.58) b
	300만원 이상	4.33(.66) b	3.96(.90) bc	4.18(.83) cb	3.97(.70) cd	4.12(.59) c
	F 값	11.32***	7.58***	8.23***	16.56***	15.65***

주) 1. * p<.05, **p<.01, ***p<.001

2. abc : 같은 문자끼리에만 집단간 유의한 차이 있음

접촉하는 것을 더욱 격려하고, 아동의 사회적 지지 추구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훈련(Cochran & Brassard, 1979)시키고, 사회관계망이 넓어지고 교류의 빈도가 많아지기(Feiring & Lewis, 1987)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하위변인은,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지지($r=-.37$)가 가장 상관이 높고, 가족스트레스와 지지원 전체($r=-.32$), 가족스트레스와 전체 사회적 지지($r=-.23$), 전체스트레스와 가족지지($r=-.21$), 전체스트레스와 지지원 전체($r=-.21$), 신체스트레스와 정서적 지지($r=-.20$), 신체스트레스와

〈표 4〉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가족스트레스	교사스트레스	친구스트레스	학업스트레스	신체스트레스	전체스트레스
지지원	가족	-.37(**)	-.10(*)	-.13(**)	-.08	-.14(**)	-.21(**)
	교사	-.18(**)	-.17(**)	-.01	-.09	-.05	-.14(**)
	친구	-.05	.07	-.06	-.02	-.19(**)	-.05
	지지원 전체	-.32(**)	-.18(**)	-.07	-.11(*)	-.11(*)	-.21(**)
지지유형	물질적	-.12(**)	-.03	-.12(**)	-.02	-.18(**)	-.12(*)
	정보적	-.05	.06	-.01	.05	-.08	.03
	정서적	-.12(*)	.05	-.06	-.00	-.20(**)	-.07
	자존감	-.08	.04	-.05	.00	-.17(**)	-.04
	지지유형 전체	-.10(*)	.05	-.07	.01	-.18(**)	-.06
사회적 지지 전체		-.23(**)	-.01	-.09	-.03	-.18(**)	-.12(*)

*p<.05 **p<.01, ***p<.001

친구지지($r=-.19$), 신체스트레스와 전체사회적 지지($r=-.18$), 신체스트레스와 물질적 지지($r=-.18$), 신체스트레스와 지지유형 전체($r=-.18$), 가족스트레스와 교사지지($r=-.18$), 교사스트레스와 지지원 전체($r=-.18$), 교사스트레스와 교사지지($r=-.17$), 신체스트레스와 자존감 지지($r=-.17$), 신체스트레스와 가족지지($r=-.14$), 전체스트레스와 교사지지($r=-.14$), 전체스트레스와 전체 사회적 지지($r=-.12$), 전체스트레스와 물질적 지지($r=-.12$), 친구스트레스와 가족지지($r=-.13$), 가족스트레스와 물질적 지지($r=-.12$), 가족스트레스와 정서적 지지($r=-.12$), 친구스트레스와 물질적 지지($r=-.12$), 학업스트레스와 지지원 전체($r=-.11$), 신체스트레스와 지지원 전체($r=-.11$), 가족스트레스와 지지유형 전체($r=-.10$), 교사스트레스와 가족지지($r=-.10$)의 순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일수록 실제 사회적 지지는 부족하며,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더 분석해 보면 '지지유형' 보다 '지지원'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 관련이 깊은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 지각과 가장

관계가 깊었다. 이 결과는 청소년기의 가족지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가족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기반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교사스트레스는 교사지지 및 가족지지와 관계가 깊으며, 학업스트레스는 개별 지지원과는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친구스트레스는 친구지지와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지각에 일상적인 스트레스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친구는 청소년에게 부모 다음으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각되는 매우 의미있는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등학생의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경험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윤혜정(1993)연구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것은 친구의 사회적 지지에 관한 지각이 청소년들에게 무조건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며 경쟁심이나 갈등 등 부정적 영향도 함께 미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신체스트레스는 교사지지와 정보적 지지 외의 모든 사회적 지지와 상관이 있었다. 즉 가족과 친구에게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우, 물질적, 정서적, 자존감 지지를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는 경우 신체스트레스를 적게 경험하였다. 개별지

지원 중에서는 친구의 지지와 신체관련 스트레스와 관련이 좀더 높은 편인데 이는 청소년기에 신체적 변화에 관심이 크고 또래의 기준에 동조하는 특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물질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신체적 개성을 표현하거나 신체적 결함을 보완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자신을 인정, 긍정해주는 등의 자기평가와 밀접한 자존감 지지와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청소년은 신체변화에 따라 증대되는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적게 지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를 보면, 성별, 부의 학력, 월소득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남학생보다 여학생은 스트레스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의 지각은 성별, 부모생존여부, 부의 학력, 모의 학력, 월소득에 따라서, 사회적 지지유형의 지각은 부모생존여부, 부의 학력, 모의 학력, 부의 직업, 월소득에 따라 하위영역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를 보면, 가족스트레스와 가족지지가 가장 상관성이 높고, 가족스트레스와 지지원 전체, 전체스트레스와 가족지지, 전체스트레스와 지지원 전체, 신체스트레스와 정서적 지지 등에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의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의 하위영역 별 차이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한다고 한 결과(이경주, 1997)와 일치한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원의 하위영역별 차이에서 월소득이 많고,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즉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다. 셋째,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유형의 하위영역별 차이에서 월소득이 많을수록 모든 지지유형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는 부적인 상관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일수록 실제 사회적 지지는 부족하며, 사회적 지지를 적게 받는 집단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더 분석해보면 '지지유형' 보다 '지지원'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 관련이 깊은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가족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 지각과 가장 관계가 깊었으며, 가족의 지지를 적게 받는 청소년일수록, 전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과정에서 도출된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한 연구결과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대인관계의 정서적인 측면을 중시하도록 강화를 받아 대인관계에 더 높은 가치를 둬으로써 그와 관련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남녀 차별적 사회화 과정을 없애기 위해 우선 가족 속에서 부모가 성평등의 모델이 되어 자녀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남녀 모두에게 양성성을 키워주는 것과 특히 아들에 대한 가족지지 지각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 경우 가족지지를 높게 지각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 자녀에게 지지를 더 제공해줄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청소년기 자녀의 성장발달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변화의 특징을 보다 잘 이해하고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며, 자녀가 타인과 접촉하는 것을 더욱 격려하고, 아동의 사회적 지지 추구 기술을 발달시키도록 훈련(Cochran & Brassard, 1979)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가족지지 지각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저소득층 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정서적·신체적 변화를 이

해하는 것과 더불어 자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회적 차원에서 부모교육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셋째, '지지유형' 보다는 '지지원'이 스트레스 지각에 더 관련이 깊은 변인이며, 가족 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 지각과 가장 관계가 깊었는데, 이것은 청소년기의 가족의 지지가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매우 중요하며,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가족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의 기반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예방 및 해결에 있어 부모 또는 형제 등의 가족의 도움이 효과적이라는 인식을 제공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스트레스 대처 및 해결에 관한 연구는 더욱 가족체계적 입장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지지 지각은 스트레스 지각수준을 완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시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이 사회적 지지를 많이 지각함으로써 스트레스를 예방 혹은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점을 본 연구는 실증적으로 증명한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를 제공하고 스트레스를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며, 청소년 개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사회적 교육적 차원에서 활성화시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끝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전제로 해석되어야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산에 거주하는 중학생만을 표집대상으로 했으나, 부산이라는 도시적 환경의 영향이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지 못하였으므로 농촌 및 중소도시의 청소년에게 확대하여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여러 지역의 청소년을 포함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는데,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은 연령층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연령층의 청소년을 포함시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되지 않은 사회적 지

지원에 따른 지지유형의 차이를 밝혀보는 것과 어느 변인이 청소년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관련성이 더 높은지에 대해서도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스트레스는 사회적 지지 지각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음을 밝혔다.

■ 참고문헌

- 1) 강영자·이재연(1996),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원과 대처방안에 관한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5), 307-325.
- 2) 김계향(1992), 중학생들의 사회적 지원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수민(1988), 사회조직망내의 대인관계에 대한 아동의 지각,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박성희 외(1997), 청소년심리학, 서울 : 양서원.
- 5) 박지원(1986), 사회적 지지 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6) 송종용(1988),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 및 사회적 지지가 이중과제의 수행과 불안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7) 심미경(1986), 아동이 인지하는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8) 윤혜정(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 지지 지각,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9)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0) 이경주·신효식·김효심(1998),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일상적 스트레스와 부적응 관계 분석을 위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29-40.
- 11) 이경희·김광웅(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6) 127-140.
- 12) 이봉희(1988), 사회계층의 측면에서 본 학업성과 교사와의 상호작용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3) 장윤정(1996), 아동·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적응행동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4) 전경련(1994),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수준과 적응방법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5) 정선자·이경희(1998), 고등학생 스트레스·대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2), 133-151.
- 16) 최창호(1993), 아동기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17) 최해림(1986), 한국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18) Barnett, R.C, Baruch, G.K., and Biener, L.(1987). *Gender and stress*, N. Y. The Free Press.
- 19) Barrera, M. Jr.(1986),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pregnant adolescent: Assess, issues, In B. H. Gottlieb(ed.), *Social network and social support*, Beverly Hills: Sage.
- 20) Buhrmester, D., & Furman, W.(1987), The development of companionship and intimacy, *Child Development* 58, 1101-1113.
- 21) Cochran, M. M. & Brassard, J. A.(1979), Child development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Child Development* 50, 601-616.
- 22)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23)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social Bulletin* 98, 310-403.
- 24) Coyne, J. C., & Downey, G.(1991), Social factors and psychopathology: Stress, social support, and coping processes, In M. R. Rosen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42, 401-425,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25) Dubow, E. F., & Tiask, J.(1989). The relation between stressful life events and adjustmen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social problem-solving skills. *Child Development* 60, 1412-1423.
- 26) Firing, C. & Lewis, M.(1987), The child's social network: Sex differences from three to six years. In C. Firing & D. L. Coates(Eds.), *The social networks of males and females: A life span perspective: Journal of Sex Research* 17, 621-636.
- 27)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1981), Comparisons of two models of stress measur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28) Wolchik, S. A., Beals, J., & Sandler, I.N.(1989), Mapping children's social support network: Conceptual and methodological issues, In D. Belle(Ed.), *Children's social networks and social supports*, 191-220, N. Y. : Wiley.